

71. 전기기구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각혈

성별	남	나이	55세	직종	전기기구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임OO이 2001년 11월 2일 오후 8시 30분경 S전기(주) 부천공장 용접팀에서 그라인딩(사상)작업 중 화장실에서 각혈을 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S대학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오후 9시 5분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2. 작업환경: S전기(주)는 1964년 설립되어 현재 부천공장에 생산직 근로자 348명 등 총 470명이 근무하면서 펌프, 선풍기, 난로 등을 생산한다. 1998년부터 토요일은 휴무이고, 하루 2시간 30분씩 주 4일 잔업을 한다. 임OO은 1984년에 입사하여 교통사고로 1986년 6월 30일 그만둘 때까지 근무하다가, 40세 때인 1988년 8월 30일 재입사하여 2001년 11월 2일 사망할 때까지 15년 4개월간 용접팀에서 그라인딩작업을 하였다. 1999년 이후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크롬, 망간, 용접흄, 분진 등 모두 노출기준 이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임OO이 1994년도 S병원의 특수건강진단에서 과거 병력 및 현재 증상에 폐결핵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1996-98년 건강진단에서도 과거 병력에 결핵, 자타각 증상에 기침 및 가래가 표시되어 있고,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인 2001년 9월 20일 인근의원 방문 당시 의무기록에 ‘목에서 가래와 피, 우>좌 거친 폐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작업 중 각혈하면서 사망하기 이전에도 이미 각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체부검감정서에도 실질 대부분이 염증 및 섬유화로 망가져 종말기 폐(end stage lung) 상태인 좌측 폐의 공동 부위에서 출혈이 되어 기관, 기관지 및 정상적인 우측 폐로 혈액이 흡인되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4. 고찰 및 결론: 임OO의 각혈은

- ① 용접팀에서 그라인딩작업 중 화장실에서 각혈을 하다가 사망하였는데,
- ② 1993년도부터 건강진단에서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하였고,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활동성 미정 폐결핵 소견이 있었으며,
- ③ 사체 부검에서 왼쪽 폐의 광범위한 염증과 섬유화 및 공동 출혈과 오른쪽 폐와 기관 및 기관지로의 혈액 흡인 등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 ④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용접팀에서 수행한 그라인딩작업 중 노출되었을 분진이나 용접흄에 의해 폐결핵이 발생하거나 폐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질병인 폐결핵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업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